

# “신태용 감독 향한 신뢰 변함없다”

###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히딩크 감독 부임 불가능하다는 입장 전회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겸 기술위원장은 15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어려운 여건하에서 본인의 축구 인생을 걸고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신태용 감독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스 히딩크 감독의 부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히딩크 감독이 직접 한국축구대표팀과 연을 맺고 싶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만큼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입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내년 러시아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히딩크 감독을 비롯한 경험있고 능력있는 분들의 도움은 언제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감독직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회장은 지난 6월 노제호 거스 히딩크재단 사무총장과 스마트폰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도 공식 해명했다.

김 부회장이 메시지를 받은 시점은 지난 6월19일이다.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한 뒤 새 감독을 물색 중이었다. 김 부회장은 6월20일 기술위원장으로 부임해 본격적인 사령탑 선임 작업에 나섰다.

노 총장은 김 부회장에게 “부회장님, 2018 러시아월드컵 한국 국대(국가대표) 감독을 히딩크 감독께서 관심이



월드컵 본선 9회 진출에 성공한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과 김호곤(오른쪽) 기술위원장이 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대화하고 있다.

높으시니 이번 기술위원회에서는 남은 두 경기만 우선 맡아서 월드컵 본선 진출 시킬 감독 선임하는데 좋을 듯합니다. 월드컵 본선 감독은 본선 진출 확정 후 좀 더 많은 지원자 중에서 찾는 게 맞을 듯해서요”라고 보냈다.

이에 김 부회장은 “당시 메시지 내용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감독 제안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기에 문자 메시지를 그 후로는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으로 제안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김 부회장은 또 “기술위원장에 취임

한 이후 노제호 총장이 만나지는 내용으로 두 차례 더 문자를 보냈으나, 같은 이유로 만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메시지 수신 이외에 내가 노제호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전화통화는 그동안 없다가 지난 9월6일 월드컵 최종예선 우즈베크전을 끝내고 귀국 후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처음 통화했다”면서 “노제호 총장으로부터 나온 언론 보도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직후에 나오는 등 시기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대표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고 떠올렸다.

/뉴시스

# 트와이스, 일본서 인기 굳히기 돌입

### 10월18일 일본서 현지 첫 오리지널 싱글 ‘원 모어 타임’ 공개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인기 굳히기에 돌입한다.

15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오는 10월18일 일본에서 현지 첫 오리지널 싱글 ‘원 모어 타임’을 공개한다.

이날 오전 일본 홈페이지를 통해 이 소식과 싱글 커버 이미지 4장이 공개되자 포털사이트 야후재팬 화제 검색어 2위에 트와이스가 랭크되기도 했다. ‘원 모어 타임’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이에게 다가가는 여자의 마음을 담은 곡. 트와이스는 자신들의 장점인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곡에 실는다.

JYP는 “곡 분위기와 어울린 앨범 커버 이미지는 멤버들의 싱그럽고 사랑스런 모습부터 율동력 함양된 퍼포먼스를 소화한 모습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올해 초부터 트와이스 열풍이 불 조짐이 예고됐다.

트와이스의 히트곡 ‘TT’의 포인트 안무인 ‘TT 포즈’가 젊은 세대는 물론 현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며 주목받았다.

일본 각종 유력 미디어에서도 이를 집중 조명하는 등 인기버림을 예



걸그룹 ‘트와이스’가 오는 10월18일 일본에서 현지 첫 오리지널 싱글 ‘원 모어 타임’을 공개한다.

고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 6월 28일 발매한 베스트앨범 ‘#트와이스는 오리콘 앨범차트 1위에 오르며 앨범 판매량 총 27만장을 기록했다.

데뷔 쇼케이스로서는 이례적으로 아레나 공연장인 도쿄체육관에서 2회를 열고 총 1만 5000여팬들을 불러모았다.

/뉴시스

JYP관계자는 “이 밖에 해외 9개 지역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1위, 일본 라인 뮤직 7월 월간 차트 1위, 일본 내 유튜브 조회수 6주 연속 1위, 7월 월간 조회수 1위 등 눈부신 성과로 일본에서 K팝의 인기를 재확인시킨 주인공으로 인정받았다고 자랑했다.

# 구혜선, 6번째 영화... 양동근·서현진과 ‘미스터리 핑크’

배우 구혜선(33)이 단편영화를 내놓는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구혜선은 양동근·서현진 등과 함께 단편영화 ‘미스터리 핑크’ 촬영을 마쳤다.

경기도 한 식물원에서 촬영된 이번 작품은 약 10분 분량으로 호러·스릴러·멜로가 섞인 영화다.

양동근·서현진과 함께 윤다경·현승민·박정숙 등이 출연했고, 구혜선이 2014년 발표한 장편영화 ‘다우더’ 스태프가 이번에도 함께했다.

구혜선이 영화를 만든 건 이번이 6번째다.

/뉴시스

2008년 ‘유쾌한 도우미’를 시작으로 ‘요술’(2010) ‘당신’(2010) ‘복숭아나무’(2012) ‘기억의 조각들’(2012) ‘다우더’(2014) 등을 연출했다. 이번 작품은 구혜선이 꾸준히 진행 중인 컬러 프로젝트 일환이다.

그는 지난 1월 ‘순수와 공포 자유’를 주제로 한 미술 전시 ‘다크 옐로’(dark YELLOW)를 열었다. ‘미스터리 핑크’ 역시 극장이 아닌, 전시를 목표로 제작된 단편영화다. 구혜선은 내년 1월 예술의전당에서 영화 제작 과정을 전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KBS ‘더 유닛’ 10월 28일 첫 방송

KBS관 ‘프로듀스 101’인 KBS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14부작)이 다음 달 28일 첫 방송된다.

15일 KBS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는 90여개 연예 기획사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참여한다.

참가 기획사는 나눔엔터테인먼트 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 피피에코드 바

인엔터테인먼트블랙홀엔터테인먼트 아크파트너스 윈즈엔터테인먼트 클라믹스엔터테인먼트 타조엔터테인먼트 JN엔터테인먼트 OUI엔터테인먼트 PR엔터테인먼트 STL엔터테인먼트 ZOO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프로듀스 101’와 마찬가지로 시청자들이 직접 유닛 맴

버들을 뽑아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키는 형식이다.

‘더 유닛’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실력과 무궁무진한 가능성,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값진 도전에 많은 응원 부탁하며 땀과 눈물, 그리고 가슴 따뜻한 성장 스토리를 통해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히딩크 감독, 한국-러시아 평가전 직접 관전할 듯

거스 히딩크 전 한국축구대표팀 감독과 신태용 현 감독의 어색한 만남이 러시아에서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히딩크 감독은 다음달 7일(한국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국과 러시아의 평가전을 관전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히딩크 감독께서 직접 경기장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못지않게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로 2008 4강 진출로 러시아 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한국-러시아전 성사에도 히딩크 감독이 큰 몫을 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러시아전 평가전 추진을 중간에서 도와준 쪽이 거스히딩크재단이다. 러시아축구협회에서 세부 협의에 대해서는 재단 쪽에 일임했다. 친선경기에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역할을 재단이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대표팀을 모두 경험한 히딩크 감독의 방문을 두고 더욱 추격을 끈 두세우는 쪽은 한국이다.

전임 대표팀 감독이 경기장을 찾는 것이 보기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 대상이 히딩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 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 1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유럽 주재 국내 특과원들을 만나 한국 대표팀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러시아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 체제로 러시아월드컵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02년을 잊지 못하는 팬들의 대다수는 “당장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월까지 지금의 흐름이 지속될 경우 히딩크 감독과 신태용 감독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대면할 확률이 크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